31차 HWPL 세계평화의 행보

HWPL 세계평화순방, 'DPCW'로 동유럽을 넘어 유럽에 평화의 꽃 피우다!

루마니아 외교부, 레반트문화문명연구소, 발트흑해이사회와 함께 국제 평화 컨퍼런스 개최
동유럽 지도자들, 'DPCW' UN 결의안 통과 위해 국제적 지지 약속

▲ 지난 1일 루마니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평화포럼 '장기적 분쟁 해결을 위한 문화외교의 역할' 개회식.

▲ 지난 2일 루마니아 펜타곤 하우스에서 열린 HWPL 평화교육 컨퍼런스.

▲ 지난 2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세계평화를 위한 레반트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DPCW 지지서에 사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2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미술관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이 끝난 후 HWPL 이만희 대표와 페트루 루친스키 몰도바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하 HWPL)이 지구촌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세계평화순방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해답으로 제시한 HWPL의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이 동유럽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와 더불어 유럽 전체에 소개되는 기회를 얻게 됐다.

HWPL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31차 루마니아 평화순방을 마친 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만희 HWPL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를 이루는 답인 DPCW 10조 38항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며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구촌을 다니며 평화순방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평화순방을 통해 유럽 정상들 모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지지해 주었다"고 전했다.

이번 평화순방은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루마니아를 방문해 외교부와 함께 개최하게 된 평화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HWPL은 루마니아 외교부, 레반트문화문명연구소(ISACCL), 발트흑해이사회(Centre for BBS)를 비롯해 부쿠레슈티 대학교, 정치행정 국립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루마니아재단, 국제윤리를 위한 국가 간 의회연합과 공동으로 국제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장기적 분쟁 해결을 위한 문화외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평화 컨퍼런스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 ▲2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세계평화를 위한 레반트 이니셔티브(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단체의 역할) ▲폐회식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미술관과 라마다 호텔에서는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힌두교, 루마니아 정교, 바하이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종교 평화 세션이 각각 개최됐다.

2일에는 부쿠레슈티 국립미술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포럼'이 열려 동유럽 5개국 전 대통령 및 유럽과 아시아 평화운동가, 인권단체 대표, 언론인 등이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스타프 밀러 핀란드 상공회의소 중재원(FAI) 대표이자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위원은 한반도 분단은 외세 강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가 두 국가의 결정을 우선적,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세계평화를 위한 레반트 이니셔티브(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단체의 역할) 및 폐회식에서는 빅토르 유신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페트루 루친스키 몰도바 전 대통령, 페타르 스토야노브 불가리아 전 대통령, 두주마르트 오토르바에브 키르키스탄 전 대통령,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루마니아 전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이 'DPCW'가 UN 결의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지를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구촌 전쟁종식 세계평화선언문(DPCW)은 10조 38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WPL과 세계 국제법 전문가들이 협력해 작성된 것이다.

1조부터 5조까지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무력 사용 금지하고 우호관계 유지하면서 국경을 침범하지 않고 무기,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 6조와 7조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강제관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8조와 9조는 민족과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10조는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문화를 전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PCW는 현재 많은 나라와 단체 및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지난 28차 평화 순방에서 이만희 대표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145개국 대사들을 만나 DPCW의 필요성을 역설해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후 29차 평화순방에서는 아프리카를 방문해 55개국 아프리카연합 의회기구 '범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의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세이셸, 에스와티니, 코모로 등 아프리카 3개국이 DPCW에 대한 공식 지지를 담은 국가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30차 평화순방에서도 태평양 8개국 12명 고위급지도자들이 DPCW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만희 대표는 DPCW의 필요성에 대해 "DPCW 10조 38항을 통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지지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같이 지구촌 대통령에게 DPCW 지지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 시대가 평화 실현 해법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어떤 지적을 받겠냐"면서 "누구에게 미뤄서도 안 되고 후대에 바래서도 안 된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